

# 奇經八脈의 生理作用, 流注經路, 病證에 對한 研究

片誠範·姜政秀\*

## I. 緒 論

奇經八脈은 正經의 拘束을 받지 않고 十二經을 分類하고 滲灌하며 組合시켜서 主導하는 作用을 가진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陽蹻脈, 陰蹻脈, 陽維脈, 陰維脈을 말한다<sup>1)</sup>. 奇經八脈 중에 任脈·督脈만은 本經의 所屬穴을 가지고 있으나, 기타 六脈은 他經의 交會穴로 構成되어 있으며<sup>2)</sup>,

또한 奇經은 帶脈만은 橫向流注하여 束腰하고 나머지 七脈이 上下縱行하여 十二正經과 交錯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sup>3)</sup>.

奇經八脈에 대한 最初의 內容은 《黃帝內經》<sup>4)</sup>, 《素問·骨空論》 등 多數의 編에 散在되어 流注 및 病症에 대하여 記述되어 있고<sup>5)</sup> 《難經》<sup>6)</sup>에

이르러서 奇經八脈에 대한 總 名稱, 流注, 病症이 비로소 體系化되기 시작하였으나 各各의 治療方式과 所屬穴에 대한 뚜렷한 言及이 되어 있지 않았다.<sup>7)</sup> 그러나 晋代에는 經絡學說이 穴位面에서 크게 發展하여 皇甫謐의 《鍼灸甲乙經》<sup>8)</sup>에 奇經八脈의 所屬穴과 交會穴에 대하여 記載되어 있고 그 후 楊上善<sup>9)</sup>, 滑壽<sup>10)</sup> 등의 醫家들을 거치면서 奇經八脈에 대한 生理, 病理, 鍼灸治療에 대하여 體系化되었고, 竇漢卿<sup>11)</sup>은 奇經八脈 八會穴에 대하여 “交經八穴者 鍼道之要也”라 하여 臨床의으로 매우 중요시하여<sup>12)</sup> 後代에 至대한 影響을 미치었다.

이러한 學說은 李時珍의 《奇經八脈考》<sup>13)</sup>에 와서 各各의 學說을 總括하여 奇經八脈의 循行部位 및 奇經八脈과 有關한 穴位에 대하여 考證하고 아울러 奇經八脈과 十二經脈의 脈氣가 相通하는 徑路, 奇經八脈의 作用 및 그 所主病候에 대하여 說明하였다.<sup>14)</sup>

그 후 奇經學說은 楊繼洲<sup>15)</sup>, 傅青主, 吳鞠通, 沈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1) 1. 崔容泰 外 : 針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47.

2)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3) 劉飛白 : 經穴學圖說, 臺北, 五洲出版社, 1984, pp.84~98, 160~161.

2) 成樂箕 : 實用針灸學, 대전,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經穴學教室, 1990, p.60.

3) 崔容泰 外 : 針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111.

4) 1.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p.1~2, 188~189, 264~265, p.197, 202, 212, 283.

2.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58, 277, 278, 285, 342, 348, 514, pp.388~389, 428~429, 514~515, 548~549. (下冊) pp.186~187, 266~267, 442~443, p.230, 238.

5)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94~96, 104~106, 127~129.

6) 1. 成樂箕 :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80, pp.23~24.

2. 葉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54.

3.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p.175~211.

7)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8)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9)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109~117.

10)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p.175~211.

11) 竇桂芳 : 鍼經指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46~147.

12) 姜揖君 : 奇經八脈交會穴의 臨床應用, 1983, 中醫雜誌 第24卷 第6期, pp.42~44.

13) 李時珍著 朴奩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76~177.

14) 1.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1),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1號, 1985, pp.64~74.

2.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2),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2號, 1985, pp.44~53.

15) 楊繼洲 :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225~241, 365~367.

金鰲 등 諸家에 의해 補充 發展되었고<sup>16)</sup> 近來에는 中國을 爲始하여 西獨 및 日本等地에서 關心을 가지고 研究하고 있다.<sup>17)</sup>

奇經八脈의 生理的 機能은 《難經》 <二十七·二十八·二十九難>에서 “十二正經과 十五絡脈의 二十七氣는 上下로 서로 쫓아서 氣血을 流通시키고 있으나, 奇經八脈만이 十二正經에 얽매이지 않고 別途로 循行하는 것은 比喩컨데 聖人이 溝梁을 만드는 것을 피하여 水道를 잘 通하게 함으로서 비가 즉즉 퍼부어 도랑이 넘칠 때를 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나 “이러한 도랑은 비가 많이 와서 도랑이 가득 차서 넘치려고 할 때 빗물을 이끌어 깊은 호수로 흘려가게 한다<sup>18)</sup>고 한 것은 奇經八脈의 生理的 機能에 대한 좋은 所見으로 보인다.

그러나 《難經》 <二十七·二十八·二十九難>에서 설명한 奇經八脈의 生理的 機能은 奇經八脈의 八脈交會穴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느낀다. 十二經脈의 經氣가 有餘치 않을 때는 八脈交會穴을 이용하여 治療에 臨할 수 없는 疑問이 남는다. 이에 奇經八脈의 生理作用, 流注經路, 病證에 대하여 諸 文獻을 參考하여 整理·比較하는 過程 중에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 이다.

## II. 本論

### 1. 奇經의 生理的 特徵

《難經》<sup>19)</sup>

凡此人脈者, 皆不拘於經, 故曰奇經八脈也.

經有十二, 經有十五, 凡二十七氣, 相隨上下, 何獨不拘於經也?

然, 聖人圖說溝渠,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雨降下, 溝渠溢滿, 當此之時, 霖霖妄行, 成人不能復圖也. 此絡脈滿溢, 諸經不能復拘也.

《聖濟總錄》<sup>20)</sup>

奇經八脈則 不拘於常 故謂之奇經. 蓋言人之氣血 常行於十二經脈 其諸經滿溢則 流入奇經焉

《十四經發揮》<sup>21)</sup>

脈有其常 十二經者 常脈也 奇經八脈則不拘於常 故謂之奇經 蓋以人之氣血 常行於十二經脈 具諸經 溢滿 則流入奇經焉

《醫學入門》<sup>22)</sup>

奇經病非自生 蓋因諸經 溢出而 流入之也.

《經絡學說의 理論과 運用》<sup>23)</sup>

奇經八脈의 特徵

1) 不內連臟腑 無表裏相配

2) 惟任, 督二脈有自己的 腧穴 其他六脈의 腧穴均 奇附于正經

3) 奇經八脈錯綜于十二經脈之間 其作用爲調節溢 蓋政經의 脈氣 如自然界的湖泊一樣.

《古典研究概論》<sup>24)</sup>

‘常’과 ‘奇’ 모두 生命現狀으로서의 經絡의 樞重性을 강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 常經은 經絡을 正面에서 파악한 데 대하여 奇經은 같은 經絡의 모습을 反面에서 把握한 것이라 하겠다. 즉 常經十二經과 奇經八脈은 개별의 존재도 아니고 기능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며, 同一經絡을 단지 正面과 反面이라는 把握하는 方法이 相違하는데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奇經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前出한 바와 같이 十四經發揮의 통속적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淺薄하면서 歪曲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 曹孝忠 : 聖濟總錄, 新文豐出版社, 台北, 1979, pp.1538~1542.

21)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p.149~158.

22) 李梴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13.

23) 上海市 中醫學會 編著 : 經絡學說의 理論及其運用, 香港, 醫藥衛生出版社, 1976, pp.39~45.

24) 山本常夫 : 古典研究概論(奇經療法), 醫道の 日本誌 第29卷 8號, 1970, p.13.

16) 盧宗植 : 奇經八脈의 病症에 대한 文獻의 考察, 서울, 慶熙大 鍼灸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85.

17) 李炳幸 : 奇經八法의 新研究, 서울, 醫文社, 1968, p.58.

18)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0~51, 54

19) 成樂箕 : 八十一難經 解釋, 서울, 高文社, 1982, pp.23~24. p.44.

《鍼灸治療學》<sup>25)</sup>

十四經發揮의 文章에서는 正經과 奇經의 病證論의 聯關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奇經은 正經에 대한 傍側循環系의 豫備의 役割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奇經의 恒상성을 의심하게 된다.

奇經은 단순한 傍側循環系나 縫合系統의 존재만이 아니고 高次元의 整理機構로서의 機能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通俗韓醫學概論》<sup>26)</sup>

奇經八脈이 전부 元陽과 眞陰에 統制되어 있어서 모든 生理的作用을 조절하기 때문에, 正經에 대하여 말하면 八脈이 모두 陰에 속한다. 그 까닭은 奇經으로 대표되어 있는 어느 氣關을 解剖學의 으로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요, 다만 어떤 作用을 표시할 따름이다. 이 奇經을 理解하려면 무엇보다 神經과 호르몬의 작용을 想起하는 것이 좋다.

《經絡辨證 鍼灸法 述要》<sup>27)</sup>

奇經八脈의 病理上 十二經脈에 대하여 分類, 組合, 主導作用이 있다.

《鍼術入門講座》<sup>28)</sup>

正經의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흘러 들어오는 側溝가 奇經이라 되어 있으나 이 설명은 단순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論述奇經八脈及其辨證施治》<sup>29)</sup>

奇經八脈은 十二正經之間을 交叉 貫串하면서 經脈系統을 分類, 組合, 主導하여 經脈間 相互連繫를 強하게 하며 十二經脈의 氣血陰陽을 調節한다.

《鍼灸의 診斷理論》<sup>30)</sup>

25) 山下詢 : 針灸治療學, 東京, 醫齒藥出版 株式會社, 1975, pp.105~106.

26) 趙憲泳 :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乙酉文化社, 1961, p.266.

27) 管正文 : 經絡辨證 針灸法 述要, 雲南中醫 雜誌 1981年 第二期, pp.10~14.

28) 間中喜雄著(柳泰佑譯) : 鍼術入門講座,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84, p.232.

29) 黃興理 : 試述 奇經八脈及其 辨證施活, 中醫雜誌 1982年 第5期, pp.53~55.

30) 惹揖君 : 針灸의 診斷 理論(下), 東洋醫學誌 第十卷 第3號,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65~68.

奇經은 十二經脈의 사이를 交貫하고 相互調節하는 作用을 한다.

《最新鍼灸學》<sup>31)</sup>

十二正經의 連繫를 密接하게 하며 十二正脈을 組合, 分類하고 主導하는 作用이 있다. 또한 十二正經의 氣血에 대하여 滲灌하고 溢蓄하는 調節作用을 한다.

《漢醫學原論》<sup>32)</sup>

陰經의 脈氣는 五臟을 營養하고 陽經의 脈氣는 六腑를 養營하는데 經氣가 充溢하면 넘쳐서 奇經으로 流入하고 反對로 不足하면 灌溉하여 臟腑를 溫潤케하고 膜理를 濡養한다고 하였다. 이는 奇經이 十二經脈의 脈氣를 溢蓄하는 作用을 說明한 것이다.

以上 諸書의 內容으로 奇經八脈의 生理的 特徵을 類推해 볼 때, 奇經은 正經에 對한 生理的 調節作用이 있으나, 正經이 病理的 變化를 일으켰을 때, 奇經으로 病邪가 移動하여 奇經의 脈氣와 生理的 機能을 破壞한다는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좀더 具體的인 奇經과 正經의 相互生理 機能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奇經의 各穴과 正經의 相互 聯關性에 對한 追加的인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2. 奇經八脈의 流注經路

1) 督脈<sup>33)</sup>의 流注經路

31) 金賢濟 外 3人共譯 : 最新針灸學, 서울, 成輔社, 1979, pp.85~87.

32) 金完熙 外 :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p.220.

33)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督脈者, 起於下極之俞, 竝於脊裏, 上至風府, 人屬於腦.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p.202~203.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08.

4. 馬元臺 張隱庵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國民七十年, 靈樞 p.381.

5.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6.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 下腹部的 胞中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會陰으로 나온 후 背部正中線을 따라 脊柱를 順行하여 위로 項後의 風府穴에 이르러 腦에 入하고 동시에 項에서 頭部正中線을 따라 頭頂, 額部, 鼻柱를 지나 上脣에서 靦交穴에 이른다.

(2) 그 別絡은 下腹部에서 直上하여 臍를 통과하여 위로 心臟을 通過하고 喉部로 進入하여 위로 이에 이르고 口脣을 돌아 안의 下方 中央部位에 達한다.

(3) 足太陽膀胱經에서 함께 內眼角에서 起始하여 額部로 上行하여 頭頂部에서 足太陽膀胱經과 交會하고 腦에 入絡하며, 다시 돌아 나와 별도로 項으로 下行하여 肩膊의 內側을 따라 脊柱의 兩傍을 끼고 下行하여 腰中에 이르러 腎臟과 連繫된다.

(4) 그 絡脈은 會陰部에서 尾骨端을 거쳐 臀部를 비스듬히 두르고, 大腿의 內後側에서 上行하는 足少陰腎經 및 足太陽膀胱經의 經脈과 相會하고 다시 脊柱를 貫通하여 腎臟에 屬한다.

2) 任脈<sup>34)</sup>의 流注經路

(1) 下腹部的 中極穴 下方(胞中)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會陰으로 나와, 腹 및 胸部的 正中線을 따라 直上하여 咽喉를 지나 下脣下緣에 이르러 口脣을 휘둘러 上脣內의 靦交穴에서 督脈과 交會하고

7. 李時珍著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80~182.

34)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202.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1.

4. 馬元臺 張隱庵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靈樞 p.381.

5.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6.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李時珍著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76~177.

分行하여 頰部로 올라가서 눈으로 進入한다.

(2) 胞中에서 脊柱를 貫通하여 위로 背部를 循行한다.

3) 衝脈<sup>35)</sup>의 流注經路

(1) 下腹部的 內部的 胞中에서 起하여 鼠蹊部(氣街)로 淺出하여 足少陰經과 足陽明經사이로 나란히 上行해서 足少陰腎經의 橫骨穴에 이르고 足少陰腎經을 따라 臍傍의 五分되는 곳을 지나 胸中에 達한 後에 四方으로 散布된다.

(2) 아래로 輸注되는 脈氣는 腎下에서 起하여 氣街部位로 淺出하고 大腿內側을 따라서 膝窩中에 進入하고, 脛骨의 內緣을 지나 足少陰經과 並行하여 內踝의 後面에 이르고 足底에 到達한다. 그 別脈은 內踝後에서 分出하여 足背를 따라 足大趾에 分布된다.

(3) 下腹의 胞中에서 分出하여 안으로 腹腔後壁을 따라 脊柱內를 上行하여 背部를 循行한다.

4) 帶脈<sup>36)</sup>의 流注經路

35)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衝脈者, 起於氣衝, 竝足陽明之經, 夾齊上行, 至胸中而散也.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202.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5.

4. 馬元臺 張隱庵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靈樞 p.381.

5.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6.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李時珍著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61~162.

36)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帶脈者, 起於李脇, 迴身一周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p.202~203.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8.

4.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5.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李時珍著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

(1) 帶脈은 季肋下의 下方인 第二腰椎에서 起하여 비스듬히 下行하여 帶脈穴에 이르러 身體의 주위를 橫繞하고 다시 帶脈穴에서 前下方을 따라서 五樞, 維道로 비스듬히 少腹에 이른다.

5) 陽蹻脈<sup>37)</sup>의 流注經路

(1) 陽蹻脈은 足太陽의 別脈으로 足太陽經의 申脈穴에서 起하여 外踝後를 따라 上行하여 下肢外側의 뒤쪽을 지나 脇肋, 肩膊 및 頸部의 外側을 지나 위로 口脣의 옆을 지나 內眼角에 이르러 陰蹻脈, 足太陽經脈과 交會하고 太陽經을 따라서 額部로 上行하고 耳後로 下行하여 風池로 들어가 그친다.

6) 陰蹻脈<sup>38)</sup>의 流注經路

(1) 陰蹻脈은 足少陰의 別脈으로 足少陰經의 照海穴에서 起하여 內踝後를 따라 下肢內側의 後方으로 陰部를 지나고 腹胸을 따라 缺盆으로 進入한다. 喉嚨의 兩傍을 따라 人迎穴의 前面으로 出

하여 觀部의 內側을 지난 內眼角에 到達하여 足太陽經, 陽蹻脈과 交會한다.

7) 陽維脈<sup>39)</sup>의 流注經路

(1) 陽維脈은 諸陽經이 交會하는 足太陽經의 金門穴部位에서 發하며, 外踝上 七寸에 있는 陽交에서 足少陽經과 竝行하여 下肢外側을 따라 上行해서 髀樞部(環跳穴)에 達하고 體幹의 外側(下腹部 脇肋의 外側)을 따라 위로 肩의 後面과 項部를 지나 上向하여 耳의 後方에 分布되고 頭額部의 後에 이르러 다시 耳의 上方으로 循行하여 項後로 向하여 風府穴處에 達한다 循行過程中 手足太陽, 手足少陽, 및 陽蹻脈과 交會한다.

8) 陰維脈<sup>40)</sup>의 流注經路

(1) 陰維脈은 諸陰經이 交會하는 足少陰經의 築賓穴에서 發하여 下肢內側을 따라 上行하여 下腹部에 이르러 足太陰脾經과 함께 衝門, 府舍, 大橫, 腹哀로 循行한다. 脇肋部에 이르러 期門에서 足厥

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89~191.

37)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陽蹻脈者, 起於跟中, 循外踝上行, 入風池.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p.202~203.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2.

4.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5.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李時珍著 朴炅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50~153.

38)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陰蹻脈者, 亦起於跟中, 循內踝上行, 至咽喉, 交貫衝脈.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p.202~203.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4.

4.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5.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李時珍著 朴炅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46~147.

39)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陽維. 陰維者, 維絡於身, 溢畜不能環流灌溉諸經者也. 故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也.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p.202~203.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6.

4.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5.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李時珍著 朴炅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35~138.

40) 1.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51. p.54.

陽維. 陰維者, 維絡於身, 溢畜不能環流灌溉諸經者也. 故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也.

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p.202~203.

3. 本間祥白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7.

4.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5.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李時珍著 朴炅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33~135.

陰肝經과 相合하여 上向해서 胸隔을 貫通하고 咽喉의 兩傍에 達해서 天突, 廉泉에서 任脈과 會合한다.

3. 奇經八脈의 病證

1) 督脈

《黃帝內經》：《素問·骨空論》<sup>41)</sup> 督脈爲病 脊強反折……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溺噎乾 督脈生病治督脈 治在骨上 甚者在臍下營

《素問·風論》<sup>42)</sup>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靈樞·經脈》<sup>43)</sup> 督脈實則 脊強反折 虛則 頭重高搖之

《難經》<sup>44)</sup>：脊強而厥

《脈經》<sup>45)</sup>：督之爲病 脊彊而厥. 衝督用事則十二經不復朝於寸口 其人皆苦恍惚狂癡 不者必當由豫有兩心也. 尺寸俱浮 直上直下 此爲督脈 腰背彊痛 不得俛仰 大人癩病 小兒風癩疾. 脈來中央浮 直上下痛者 督脈也 動苦腰背膝寒 大人癩 小兒癩也.

《黃帝鍼灸甲乙經》<sup>46)</sup>：督脈爲病 脊強反折.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溺噎乾 督脈生病治督脈.

《黃帝內經太素》<sup>47)</sup>：督脈爲病 脊強反折.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溺噎乾 督脈生病治督脈.

《十四經發揮》<sup>48)</sup>：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小便, 大便)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

溺 噎乾 治 在督脈.

《鍼經指南》<sup>49)</sup>：陽蹻陽維并督脈 主肩背腰腿在表之病

《聖濟總錄》<sup>50)</sup>：此爲病 令人脊強反折.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尿 噎乾 治在督脈.

《鍼灸節要》<sup>51)</sup>：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尿 噎乾 脊強反折 督脈生病 治督脈.

《鍼灸聚英》<sup>52)</sup>：督之爲病 脊強而厥 又曰 其受邪氣 畜則腫熱 砭射之也

《奇經八脈考》<sup>53)</sup>：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尿 噎乾. 督脈實則脊強 反折 虛則頭重高搖之. 督之爲病 脊強而厥. 尺寸俱浮 直上直下 此爲督脈 腰背彊痛 不得俛仰 大人癩病 小兒風癩疾. 脈來中央浮 直上下痛者 督脈也 動苦腰背膝寒 大人癩 小兒癩也.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風入係頭 則爲目風眼寒.

《醫學入門》<sup>54)</sup>：督病則 脊強而折厥

《鍼灸大成》<sup>55)</sup>：手足拘攣戰掉 中風不語癱癲 頭疼眼腫淚漣漣 腰膝背腰痛遍 項強傷寒不解 牙齒顛腫咽喉 手麻足麻破傷牽 盜汗後溪先砭. 人病脊膂強痛 癱癲 背心熱 狂走 鬼邪 目痛 大椎骨痠疼 斯乃督脈起於下極 竝脊上行風府 起於尾閭 而生是病. 其爲病也 脊強而厥.

《東醫寶鑑》<sup>56)</sup>：督脈爲病 脊強而反折

《類經圖翼》<sup>57)</sup>：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癯瘠遺尿 噎乾 治在督

41) 王琦 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p.264~265.

42) 王琦 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202.

43)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上冊) p.278.

44)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1980，pp.23~24.

45) 王叔和：王叔和脈經，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pp.33~34.

46)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臺北，國風出版社，1975，pp.48~51.

47)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p.110.

48) 本間祥白編：圖解十四經發揮，서울，正言出版社，1985，p.149.

49) 賈桂芳：鍼經指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46~147.

50) 趙信編：聖濟總錄(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175.

51) 高武：鍼灸節要，서울，一中社，1989，pp.5~6，10~13.

52) 高武：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124.

53) 李時珍著 朴炅譯：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80~182.

54) 李梴：醫學入門，서울，翰成社，1984，pp.76~79.

55)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84，p.230.

56) 許浚：東醫寶鑑，서울，대성출판사，1992，p.339.

57) 張景岳：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pp.198~201.

脈。實則脊強虛則頭中。此爲病令人脊強反折。

《鍼灸集成》<sup>58)</sup>：督脈爲病脊強而反折

《鍼灸經緯》<sup>59)</sup>：手足拘攣戰掉中風不語癩癩頭疼眼腫淚漣漣腰膝腰背痛遍項強傷寒不解牙齒腮腫咽喉手麻足麻破傷牽盜汗後谿先疔

《經絡學圖說》<sup>60)</sup>：其爲病也脊反折不得前後衝疝痛女子不孕癯痔溺噎乾病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61)</sup>：痛症이小腹에서上하여心에衝함. 大小便閉女子는不孕症, 痔利尿, 筋痺, 口渴

《鍼灸學》<sup>62)</sup>：實證可見角弓反張背脊強痛等, 虛證則出現頭暈目眩搖拽不定等。癩狂, 鼻淵, 齒齦腫痛, 口喎, 口噤, 脣吻強急, 兩腮生瘡

《鍼灸經穴學》<sup>63)</sup>：督脈發病時有背脊強直角弓反張等症并有自少腹上冲而痛令人不得則前後搜的冲疝症以及癩痔遺尿噎乾等女子方面更可有不孕症

《最新鍼灸學》<sup>64)</sup>：手足拘攣, 振戰, 搖擗, 中風不語, 癩疾, 癩狂, 頭痛, 目赤腫痛, 流淚, 腿膝腰背疼痛, 頸項強直, 傷寒, 咽喉或齒牙腫痛, 手足麻痺, 破傷風, 盜汗等症

《鍼灸學》<sup>65)</sup>：督脈爲病脊強反折……此生病從少腹上衝心而痛不得前後爲衝疝其女子不孕癯痔遺溺噎乾。督之爲病脊強而厥。尺寸俱浮直上直下此爲督脈腰背強痛不得俯仰大人癩病小兒風癩疾。脈來中央浮直上下痛者督脈也動苦腰背膝寒大人癩小兒癩也。風氣循風府而上則爲腦風風入系頭則爲目風眼寒

《鍼灸學》<sup>66)</sup>：督脈則脊強而折厥。神經系, 呼吸

系, 消化系, 泌尿生殖系, 運動系病症, 熱性病斗督脈이經過하는部位인頭面頸項脊背腰骶部の痛症을主治한다. 特히脊強疼痛, 角弓反張, 神志病, 脫肛, 子宮下遂, 不能小便, 疝氣, 頭頸腰脊疼痛을主治한다.

2) 任脈

《黃帝內經》：《素門·上古天真論》<sup>67)</sup>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

《素門·骨空論》<sup>68)</sup>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瘕聚

《素門·刺腰痛論》<sup>69)</sup>會陰之脈令人腰痛痛上深深汗出汗乾令人欲飲飲已欲走

《靈樞·五音五味論》<sup>70)</sup>其有天宦者……此天之所不足也其衝任不成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

《難經》<sup>71)</sup>：任之爲病其內苦結男子爲七疝女子爲瘕聚

《脈經》<sup>72)</sup>：任之爲病其內苦結男子爲七疝女子爲瘕聚。橫寸口邊丸丸此爲任脈苦腹中有氣如指上搶心不得俯仰拘急。脈來緊細實長至關者任脈也動苦少腹繞臍下引橫骨陰中切痛。

《黃帝鍼灸甲乙經》<sup>73)</sup>：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瘕聚。其衝任不成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

《黃帝內經太素》<sup>74)</sup>：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瘕聚。任衝之脈不營其口脣故鬚不生焉。

p.682, 688.

67) 王琦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2.

68) 王琦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264.

69) 王琦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197.

70) 河北醫學院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下冊 p.230.

71)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1980，pp.23~24.

72) 王叔和：王叔和脈經，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pp.33~34.

73)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臺北，國風出版社，1975，pp.48~51.

74)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pp.113~114.

58)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35.

59)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5，pp.290~291.

60) 劉飛白：經絡學圖說，臺北，五洲出版社，1984，p.88.

61) 本間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4，p.291.

62) 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香港，1982，p.64

63) 楊維傑：鍼灸經穴學，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8，p.50.

64) 金賢濟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p.90.

65) 楊甲三：鍼灸學，上海，知音出版社，1987，p.69.

66) 崔容泰外：鍼灸學(上)，서울，集文堂，1988，

《十四經發揮》<sup>75)</sup>：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脣 故鬚髮不生 是以任脈為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鍼經指南》<sup>76)</sup>：陰蹻陰維任帶衝 去心腹脇肋在裏之凝

《聖濟總錄》<sup>77)</sup>：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脣 故鬚髮不生 是以任脈為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鍼灸節要》<sup>78)</sup>：為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鍼灸聚英》<sup>79)</sup>：任之為病 其內苦結 男子為七疝 女子為瘕聚

《奇經八脈考》<sup>80)</sup>：任脈為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橫寸口邊脈丸丸者 任脈也 苦腹中有氣 如指上搶心 不得俛仰拘急。寸口脈來緊細實長 至關者 任脈也 動苦少腹繞臍下 引橫骨陰中切痛。

《醫學入門》<sup>81)</sup>：任病則 男疝而女帶瘕

《鍼灸大成》<sup>82)</sup>：痔瘡便腫泄痢 唾紅溺血咳嗽 牙疼喉腫小便難 心胸腹疼噎咽 產後發強不語 腰痛血疾臍寒 死胎不下膈中寒 列缺乳癰多散。人病七疝八瘕 寒溫不調 口舌生瘡 頭項強痛 斯乃任脈起於中極下 生毛 循腹 到關元 直至咽喉天突 過承漿而生是病。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脣 故鬚髮不生。其為病也 苦

內結 男子為七疝 女子為瘕聚。

《東醫寶鑑》<sup>83)</sup>：任脈為病 其內結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類經圖翼》<sup>84)</sup>：任脈為病 男子則內結七疝 女子則帶下瘕聚

《鍼灸集成》<sup>85)</sup>：任脈為病 其內苦急 男子為七疝 女子為瘕聚

《鍼灸經緯》<sup>86)</sup>：痔瘡便腫泄痢 唾紅溺血咳嗽 牙疼喉腫小便難 心胸腹疼噎咽 產後發強不語 腰痛血疾臍寒 死胎不下膈中寒 列缺乳癰多散

《經絡學圖說》<sup>87)</sup>：女子帶下并瘕聚 男子內結為疝痛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88)</sup>：男子疝 腹內結積，七疝，女子疝 帶下，瘕瘕，積聚

《鍼灸學》<sup>89)</sup>：男子患疝氣一類病症，女子患赤白帶下，以及腹部腫塊等

《鍼灸經穴學》<sup>90)</sup>：任脈發病時 腹內有堅結急迫的緊張感 在男子易患七種七疝症(厥疝，症疝，寒疝，氣疝，盤疝，附疝，狼疝) 在女子易患赤白帶下 腹中結塊凝聚不散 無有常處等症

《最新鍼灸學》<sup>91)</sup>：痔疾，便泄，痢疾，瘡疾，咳嗽，吐血，血尿，齒痛，咽腫，小便不利，胸脘腹部疼痛，噎膈，產後中風，腰痛，胎衣不下，臍腹部冷感，嘔吐，吃逆，乳房痛，崩漏下血 等症

《鍼灸學》<sup>92)</sup>：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其衝任不成 宗筋不成 有氣

75) 本間祥白 編：圖解十四經發揮，서울，正言出版社，1985，p.151.

76) 賈桂芳：鍼經指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46~147.

77) 趙信編：聖濟總錄(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179.

78) 高 武：鍼灸節要，서울，一中社，1989，pp.5~6，10~13.

79) 高 武：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132.

80) 李時珍著 朴昞譯：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76~177.

81) 李樅：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2，p.313.

82)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84，p.238.

83) 許 浚：東醫寶鑑，서울，대성출판사，1992，p.339.

84) 張景岳：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pp.198~201.

85)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34.

86)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5，p.292.

87) 劉飛白：經絡學圖說，臺北，五洲出版社，1984，p.86.

88) 本間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4，p.291.

89) 上海中醫學院 編：鍼灸學，香港，1982，pp.65~66.

90) 楊維傑：鍼灸經穴學，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8，p.51.

91) 金賢濟 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p.1，pp.77~91.

92) 楊甲三：鍼灸學，上海，知音出版社，1987，pp.71~72.



無血 脣口不榮 故鬢不生.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任脈爲病 其內苦結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 脈來緊細實長至關者 任脈也. 動苦少腹繞臍下 引橫骨陰中切痛. 橫寸口邊丸丸 此爲任脈 苦腹中有氣 如指上搶心 不得俛仰拘急.

《鍼灸學》<sup>93)</sup> : 任病則男疝而女帶瘕. 神經系, 呼吸系, 消化系, 泌尿生殖系病症, 寒性病 및 任脈이 經過하는 面部 頸部 咽喉 胸腹 會陰等 部位의 病症을 主治한다. 特히 疝氣, 帶下, 腹中結塊, 泌尿生殖系, 呼吸系, 胃腸, 咽喉等 病을 主治한다.

### 3) 衝脈

《黃帝內經》 : 《素問·骨空論》<sup>94)</sup> 衝脈爲病 逆氣裏急

《素問·舉痛論》<sup>95)</sup> 寒氣客于衝脈 衝脈起于關元 隨腹直上 寒氣客則脈不通 脈不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靈樞·五音五味論》<sup>96)</sup> 宦者去其宗筋 血瀉不復 皮膚內結 脣口不榮 故鬢不生

《靈樞·逆順肥瘦論》<sup>97)</sup> 夫衝脈者 …… 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靈樞·海論》<sup>98)</sup>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靈樞·百病始生論》<sup>99)</sup> 虛邪之中人也 …… 在伏衝之時 體重身痛 …… 息而成積 …… 其著于伏衝之脈者 揣之應手而動 發手則熱氣下于兩股 如湯沃之狀

《難經》<sup>100)</sup> : 衝之爲病 逆氣而裏急

《脈經》<sup>101)</sup> : 衝之爲病 逆氣而裏急. 衝督用事則十二經不復朝於寸口 其人皆苦恍惚狂癡 不者必當由豫有兩心也. 尺寸脈口牢 直上直下 此爲衝脈 胸中有寒疝也. 脈來中央堅實 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有瘕疝 絕孕 遺失溺 脇支滿煩也.

《黃帝鍼灸甲乙經》<sup>102)</sup> : 衝脈爲病 逆氣裏結. 宦者去其宗筋 傷其衝脈 血瀉不復 皮膚內結 脣口不榮 故鬢不生. 不動則厥 則寒矣.

《黃帝內經太素》<sup>103)</sup> : 任衝之脈 不營其口脣 故鬢不生焉. 宦者去其宗筋 傷其衝脈 血瀉不復 皮膚內結 脣口不營 故鬢不生之. 寒氣客于衝脈 衝脈起于關元 隨腹直上 上則脈不通 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十四經發揮》<sup>104)</sup> : 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脣 故鬢髮不生. 此爲病 令人逆氣裏急.

《鍼經指南》<sup>105)</sup> : 陰蹻陰維任帶衝 去心腹脇肋在裏之凝

《聖濟總錄》<sup>106)</sup> : 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脣 故鬢髮不生. 此爲病 令人逆氣裏急.

《鍼灸節要》<sup>107)</sup> : 爲病 令人逆氣裏急

《鍼灸聚英》<sup>108)</sup> : 此爲病 令人逆氣而裏急

《奇經八脈考》<sup>109)</sup> : 衝脈爲病 逆氣而裏急. 秋冬

pp.23~24.

101)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2~35.

102)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103)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116.

104) 本間祥白 編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1, 155.

105) 寶桂芳 : 鍼經指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46~147.

106) 趙佶 編 : 聖濟總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84.

107) 高武 : 鍼灸節要, 서울, 一中社, 1989, pp.5~6, 10~13.

108) 高武 :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133~134.

109) 李時珍著 朴奩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

93) 崔容泰 外 :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682, 718.

94)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264.

95)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188.

96)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下冊) p.230.

97)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p.548~549.

98)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514.

99)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下冊) p.238.

100) 成樂箕 :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80,

之月 胃脈四道爲衝脈所逆 脅下少陽脈二道而反上行 名曰厥逆 其證 氣上衝咽 不得息 而喘息有音不得臥 凡逆氣上衝 或兼裏急 或作躁熱 皆衝脈逆也 衝督用事則十二經不復朝於寸口 其人皆苦恍惚狂癡 尺寸俱牢直上直下 此乃衝脈 胸中有寒疝也 脈來中央堅實 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 有瘦疝 遺溺 脅支滿煩女子絕孕

《醫學入門》<sup>110)</sup>：衝病則 氣逆而裏急

《鍼灸大成》<sup>111)</sup>：九種心疼延悶 結胸翻胃難停 酒食積聚胃腸鳴 水食氣疾膈病 臍痛腹疼脇脹 腸風 瘡疾心疼 胎衣不下血迷心 泄瀉公孫立應 血氣盛則 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脣 故鬢髮不生 其爲病也 逆氣而裏急

《東醫寶鑑》<sup>112)</sup>：衝脈爲病 逆氣而裏急

《類經圖翼》<sup>113)</sup>：此爲病 令人逆氣而裏急

《鍼灸集成》<sup>114)</sup>：衝脈爲病 逆氣而裏急

《鍼灸經緯》<sup>115)</sup>：九種心疼延悶 結胸翻胃難停 酒食積聚胃腸鳴 水食氣疾膈病 臍痛腹疼脇脹 腸風 瘡疾心疼 胎衣不下血迷心 泄瀉公孫立應

《經絡學圖說》<sup>116)</sup>：脈氣衝逆爲喘息 氣血不和 急痛難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117)</sup>：逆氣 胸內急痛

《鍼灸學》<sup>118)</sup>：氣急，胸腹痛，氣上衝心，胸脘滿悶，結胸，反胃，腸鳴，水氣，泄瀉，脇脹，臍腹痛，胎衣不下，血崩昏迷等

《鍼灸經穴學》<sup>119)</sup>：衝脈發病時 有氣從少腹上

衝咽喉 喘而不得平臥 以及腹中動氣 脹急疼痛等

《最新鍼灸學》<sup>120)</sup>：胸部上腹部疼痛，滿悶，結胸，反胃，酒食的聚，腸鳴，大便溏泄，噎膈，氣急，脇脹，臍腹痛，腸風便血，瘡疾，胎衣不下，產後暈厥等症

《鍼灸學》<sup>121)</sup>：衝脈爲病 逆氣裏急 寒氣客于衝脈 衝脈起于關元 隨腹直上 寒氣客則脈不通 脈不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衝督用事則十二經不復朝於寸口 其人皆苦恍惚狂癡 脈來中央堅實 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有瘦疝 絕孕 遺失溺 脇支滿煩也

《鍼灸學》<sup>122)</sup>：逆氣而裏急，氣從少腹上衝 腹中急脹疼，腹內拘急而痛。人身發育斗 營養作用에 關與하고 泌尿生殖器疾患과 乳房痛에 有效하며 妊娠에 關與한다

4) 帶脈

《黃帝內經》：《素門·痿論》<sup>123)</sup> 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也

《素門·刺腰痛論》<sup>124)</sup> 衝絡之脈令人腰痛 不可以俯仰 仰則恐仆 得之學重傷腰 衝絡絕 惡血歸之

《難經》<sup>125)</sup>：帶之爲病 腹滿 腰溶溶若坐水中

《脈經》<sup>126)</sup>：帶之爲病 苦腹滿 腰容容若坐水中 狀 診得帶脈 左右繞臍腹腰痛 衝陰股也

《黃帝內經太素》<sup>127)</sup>：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仁 故足痿不用

《十四經發揮》<sup>128)</sup>：其爲病也 腰腹縱容 如囊水

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61~162.

110) 李槌：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13.

111) 楊繼洲：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26.

112) 許浚：東醫寶鑑, 서울, 대성출판사, 1992, p.339.

113) 張景岳：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198~201.

114) 李經緯：鍼灸集成, 北京, 中國書店, 1986, p.34.

115) 楊維傑：鍼灸經緯,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5, p.290.

116) 劉飛白：經絡學圖說, 臺北, 五洲出版社, 1984, p.90.

117) 本問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4, p.293.

118) 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 香港, 1982, pp.65~66.

119) 楊維傑：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52.

120) 金賢濟 外：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83, p.90.

121) 楊甲三：鍼灸學, 上海, 知音出版社, 1987, pp.74~75.

122) 崔容泰 外：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682, 745.

123) 王琦 外：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212.

124) 王琦 外：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197.

125)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80, pp.23~24.

126) 王叔和：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3~34.

127) 楊上善：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111.

之狀

《鍼經指南》<sup>129)</sup>：陰蹻陰維任帶衝 去心腹脇肋在裏之凝

《聖濟總錄》<sup>130)</sup>：腰腹縱容 如囊水之狀

《鍼灸節要》<sup>131)</sup>：為病 腰腹縱容 如囊水之狀

《鍼灸聚英》<sup>132)</sup>：腰腹縱容 如囊水之狀

《奇經八脈考》<sup>133)</sup>：帶之為病 苦腹滿 腰容容若坐水中狀。帶脈二穴 主腰腹縱容 如囊水之狀 婦人少腹痛 裏急後重 癥瘕 月事不調 赤白帶下 可鍼六分 灸七壯。帶脈為病 左右繞臍腹腰痛 衝陰股也。皆絡帶脈 因諸經上下往來 遺熱於帶脈之間 客熱鬱抑 白物滿溢 隨洩而下 綿綿不絕 是為白帶。

《醫學入門》<sup>134)</sup>：帶病則 腹脹滿而腰溶溶

《鍼灸大成》<sup>135)</sup>：手足中風不舉 痛麻發熱拘攣 頭風痛腫項腮連 眼腫赤疼頭旋 齒痛耳聾咽腫 浮風搔癢筋牽 腿疼脇脹肢偏 臨泣鍼時有驗。其為病也 腹滿 腰溶溶如坐水中。

《東醫寶鑑》<sup>136)</sup>：帶脈為病 腹滿 溶溶如坐水中

《類經圖翼》<sup>137)</sup>：其為病也 腰腹縱容 如囊水之狀

《鍼灸集成》<sup>138)</sup>：帶脈為病 腹滿 溶溶如坐水中

《鍼灸經緯》<sup>139)</sup>：手足中風不舉 痛麻發熱拘攣 頭風痛腫項腮連 眼腫赤疼頭旋 齒痛耳聾咽腫 浮風

嗽癢筋牽 眼疼脇脹肢偏 臨泣鍼時有驗

《經絡學圖說》<sup>140)</sup>：為病溶溶若水浸 胃虛脈緩 足痿躄 婦人病帶赤白淋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141)</sup>：腰，小腹弛緩하며 腫滿한다

《鍼灸學》<sup>142)</sup>：腹滿脹痛，腰部覺冷如坐于水中，痿證，月經不調，赤白帶下，腰腹脹滿，繞臍痛，陰股痛，脇肋痛等

《鍼灸經穴學》<sup>143)</sup>：帶脈發病時 有腹中脹滿 腰部無力而畏寒 有似坐水中之狀

《最新鍼灸學》<sup>144)</sup>：手足中風麻痺，肢體疼痛，拘攣，發熱，頭風痛，頸項部頰部腫脹，目赤痛，齒痛，咽腫，頭眩，耳聾，皮膚風疹搔痒，筋脈牽引不舒，腿痛，脇肋疼痛 等症

《鍼灸學》<sup>145)</sup>：帶之為病 腹滿 腰溶溶若坐水中。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也。診得帶脈 左右透臍腹腰痛 衝陰股也。中部左右彈者 帶脈也 動苦少腹痛引命門 女子月水不來 絕繼復不止陰辟寒 令人無者 男子少腹拘急 或失精也。

《鍼灸學》<sup>146)</sup>：腹滿 腰溶溶若坐水中，腰腹縱容 如囊水之狀腹滿，腰部有弛軟無力感 腰周圍를 繞圍하므로 脊柱神經痛，腰痛 및 泌尿生殖器 疾患에 有效하고 全身이 陰陽經脈을 調節하는 人身에 있어서 腰帶와 같은 脈이다.

#### 5) 陽蹻脈

《黃帝內經》：《素門·繆刺論》<sup>147)</sup> 邪客于足陽蹻之脈 令人目痛從內眦始

《靈樞·寒熱病論》<sup>148)</sup>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

140) 劉飛白：經絡學圖說，臺北，五洲出版社，1984，pp.91-92.

141) 本間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4，p.294.

142) 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香港，1982，pp.65-66.

143) 楊維傑：鍼灸經穴學，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8，p.53.

144) 金賢濟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p.90.

145) 楊甲三：鍼灸學。上海，知音出版社，1987，p.76.

146) 崔容泰外：鍼灸學(上)，서울，集文堂，1988，p.682, 750.

147) 王琦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283.

128) 本間祥白編：圖解十四經發揮，서울，正言出版社，1985，p.158.

129) 寶桂芳：鍼經指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46-147.

130) 趙信編：聖濟總錄(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185.

131) 高武：鍼灸節要，서울，一中社，1989，pp.5-6, 10-13.

132) 高武：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135.

133) 李時珍著 朴炅譯：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89-191.

134) 李梴：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2，p.313.

135)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84，p.233.

136) 許浚：東醫寶鑑，서울，대성출판사，1992，p.339.

137) 張景岳：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pp.198-201.

138)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35.

139)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5，p.291.

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  
《靈樞·邪客論》<sup>149)</sup> 衛氣獨爲其外 行于陽 不得入于陰 行于陽則陽氣盛 陽氣盛 則陽蹇陷 不得入于陰 陰虛 故目不瞑

《靈樞·大惑論》<sup>150)</sup> 陽氣滿則陰蹇盛 不得入于陰則陰氣虛 故目不瞑矣

《難經》<sup>151)</sup>：陽蹇爲病 陰緩而陽急

《脈經》<sup>152)</sup>：陽蹇爲病 陰緩而陽急。此爲陰蹇陽蹇之脈也 此家曾有病鬼魅風死 苦恍惚 亡人爲禍也。診得陽蹇病拘急。

《黃帝鍼灸甲乙經》<sup>153)</sup>：陽蹇爲病 陰緩而陽急

《黃帝內經太素》<sup>154)</sup>：邪客于足陽蹇之脈 令人目痛 從內眦始。陰蹇 陽蹇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陽氣盛 則瞑目 陰氣盛則瞑目。

《十四經發揮》<sup>155)</sup>：其爲病也 令人陰(指內踝以上)緩而陽(外踝以上)急。氣并相還則爲濡目 氣不營則目不合。

《鍼經指南》<sup>156)</sup>：陽蹇陽維并督脈 主肩背腰腿在表之病

《聖濟總錄》<sup>157)</sup>：氣并相還則爲濡目 氣不榮則目不合

《鍼灸節要》<sup>158)</sup>：爲病 陰緩而陽急 氣并相還則爲濡目 氣不榮則目不合

《鍼灸聚英》<sup>159)</sup>：其爲病也 令人陰緩而陽急

《奇經八脈考》<sup>160)</sup>：陽蹇爲病 陰緩而陽急。陽蹇脈急 當從外踝以上急 內踝以上緩。寸口脈前部左右彈者 陽蹇也 動苦腰背痛 又爲癩癩 僵仆羊鳴 惡風偏枯 痛痺身體強 又曰 微瀼爲風癩 竝取陽蹇。癩癩癩癩 不知所苦 兩蹇之下 男陽女陰。陽蹇爲病陽急 則狂走目不昧表裏和。癩癩晝發灸陽蹇 夜發陰蹇。邪客于足陽蹇之脈 令人目痛 從內眦始。陰蹇 陽蹇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熱厥。陽蹇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目不瞑也。

《醫學入門》<sup>161)</sup>：陽蹇之病 陽急而狂奔

《鍼灸大成》<sup>162)</sup>：腰背屈強腿腫 惡風自汗頭疼 雷頭赤目痛眉稜 手足麻痺臂冷 吹乳耳聾鼻衄 癩癩肢節煩憎 遍身腫滿汗頭淋 申脈先鍼有應。其爲病也 令人陰緩而陽急。

《東醫寶鑑》<sup>163)</sup>：陽蹇之病 陽急而狂奔

《類經圖翼》<sup>164)</sup>：邪客于足陽蹇之脈 令人目痛 從內眦始。陽蹇爲病 陰緩而陽急。氣并相還則爲濡目 氣不榮則目不合。

《鍼灸集成》<sup>165)</sup>：陽蹇之病 陽急而狂奔

《鍼灸經緯》<sup>166)</sup>：腰背屈強腿腫 惡風自汗頭疼 雷頭赤目痛眉稜 手足麻痺臂冷 吹乳耳聾鼻衄 癩癩肢節煩憎 遍身腫滿汗頭淋 申脈先鍼有應

《經絡學圖說》<sup>167)</sup>：邪氣所客目內疼 爲病陰緩而陽急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168)</sup>：內踝以上弛緩하며

148)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上冊) p.389.

149)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下冊) p.267.

150)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下冊) p.442.

151)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1980，pp.23~24.

152) 王叔和：王叔和脈經，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pp.33~34.

153)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臺北，國風出版社，1975，pp.48~51.

154)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p.112.

155) 本間祥白 編：圖解十四經發揮，서울，正言出版社，1985，p.152.

156) 賈桂芳：鍼經指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46~147.

157) 趙信編：聖濟總錄(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183.

158) 高 武：鍼灸節要，서울，一中社，1989，pp.5~6，10~13.

159) 高 武：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132.

160) 李時珍著 朴昞譯：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50~153.

161) 李 槿：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2，p.313.

162)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84，pp.231~232.

163) 許 浚：東醫寶鑑，서울，대성출판사，1992，p.339.

164) 張景岳：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pp.198~201.

165)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34.

166)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5，p.291.

167) 劉飛白：經絡學圖說，臺北，五洲出版社，1984，p.96.

外踝以上攀急

《鍼灸學》<sup>169)</sup>：目痛從內眦始，不眠，陽蹻脈氣失調，會出現肢體的內側肌肉弛緩而外側拘急，說明～與下肢運動有密切關係。腰背強痛，腿腫，惡風，自汗，頭痛，腦頭風，目赤痛，眉稜骨痛，手足麻痺，拘急，厥逆，吹乳，耳鳴，鼻衄，癩癩，骨節疼痛，遍身腫，滿頭出汗等

《鍼灸經穴學》<sup>170)</sup>：陽蹻脈發病時 當從外踝以上急 內踝以上緩

《最新鍼灸學》<sup>171)</sup>：腰背強直，腿腫，惡風，自汗，頭痛，雷頭風，頭汗出，目赤痛，眉稜骨痛，骨節疼痛，手足麻痺，拘攣，厥逆，吹乳，耳聾，鼻衄，癩癩，全身浮腫 等症

《鍼灸學》<sup>172)</sup>：邪客于足陽蹻之脈 令人目痛從內眦始。陰蹻 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陽蹻為病 陰緩而陽急。寸口脈前部左右彈者 陽蹻也 動苦腰背痛 又為癩癩 僵仆羊鳴 惡風偏枯 痛痺身體強 又曰微瀼為風癩 竝取陽蹻。

《鍼灸學》<sup>173)</sup>：陰緩而陽急，陽急而狂奔。陰氣不足으로 陽氣偏盛하여서 出現된 眼病，不眠，眼疾患，狂症，癩癩之類에 有效하며 三陽經의 氣를 三陰經에 連絡하여 三陽經의 氣를 調節하는 卽 人身에 陽을 鼓舞시키는 脈이다.

#### 6) 陰蹻脈

《黃帝內經》：《靈樞·寒熱病論》<sup>174)</sup>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

《靈樞·脈度論》<sup>175)</sup> 氣并相還則為濡目 氣不榮

168) 本間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4，p.292.

169) 上海中醫學院 編：鍼灸學，香港，1982，pp.65～66.

170) 楊維傑：鍼灸經穴學，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8，p.53.

171) 金賢濟 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p.90.

172) 楊甲三：鍼灸學，上海，知音出版社，1987，pp.78～79.

173) 崔容泰 外：鍼灸學(上)，서울，集文堂，1988，p.682，752.

174)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上冊) p.389.

則目不合

《靈樞·大惑論》<sup>176)</sup> 衛氣留于陰 不得行于陽 留于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蹻滿 不得入于陽則陽氣虛 故目閉也

《靈樞·熱病論》<sup>177)</sup> 目中赤病 從內眦始 取之陰蹻 陰蹻為病 陽緩而陰急

《難經》<sup>178)</sup>：陰蹻為病 陽緩而陰急

《脈經》<sup>179)</sup>：陰蹻為病 陽緩而陰急。此為陰蹻陽蹻之脈也 此家曾有病鬼魅死 苦恍惚 亡人為禍也。陰蹻病緩

《黃帝鍼灸甲乙經》<sup>180)</sup>：陰蹻為病 陽緩而陰急

《黃帝內經太素》<sup>181)</sup>：氣并相還則為濡目 氣不榮則目不合。陰蹻 陽蹻 陰陽相交 陽入陰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 則瞑目 陰氣盛 則瞑目。

《十四經發揮》<sup>182)</sup>：此為病者 令人陽緩而陰急

《鍼經指南》<sup>183)</sup>：陰蹻陰維任帶衝 去心腹脇肋在裏之凝。陰蹻陰維 而下胎衣。

《聖濟總錄》<sup>184)</sup>：此為病者 令人陽緩而陰急

《鍼灸節要》<sup>185)</sup>：為病者 令人陽緩而陰急

《鍼灸聚英》<sup>186)</sup>：此為病者 令人陽緩而陰急

《奇經八脈考》<sup>187)</sup>：陰蹻為病 陽緩而陰急。陰蹻

175)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上冊) p.348.

176)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下冊) p.443.

177) 河北醫學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上冊) p.428.

178)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1980，pp.23～24.

179) 王叔和：王叔和脈經，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pp.33～34.

180)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臺北，國風出版社，1975，pp.48～51.

181)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p.112.

182) 本間祥白 編：圖解十四經發揮，서울，正言出版社，1985，p.154.

183) 寶桂芳：鍼經指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46～147.

184) 趙估編：聖濟總錄(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183.

185) 高 武：鍼灸節要，서울，一中社，1989，pp.5～6，10～13.

186) 高 武：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133.

脈急 當從內踝以上急 外踝以上緩。寸口脈後部左右彈者 陰蹻也 動苦癩癩寒熱 皮膚淫痺 又為少腹痛裏急 腰及臍窠下相連 陰中痛 男子陰疝 女子漏下不止 癩癩瘰癧 不知所苦 兩蹻之下 男陽女陰。陰蹻為病 陰急則陰厥脛直 五絡不通 表和裏病。癩癩晝發 灸陽蹻 夜發陰蹻。目中赤病 從內眦始 取之陰蹻。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熱厥。陰蹻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目閉也。

《醫學入門》<sup>188)</sup>：陰蹻之病 陰急而足直

《鍼灸大成》<sup>189)</sup>：喉塞小便淋澀 膀胱氣痛腸鳴 食黃酒積腹脹并 嘔瀉胃翻便緊 難產昏迷積塊 腸風下血常頻 膈中快氣氣核侵 照海有功必定。其為病者 令人陽緩而陰急。

《東醫寶鑑》<sup>190)</sup>：陰蹻之病 陰急而足直

《類經圖翼》<sup>191)</sup>：陰蹻為病 陽緩而陰急

《鍼灸集成》<sup>192)</sup>：陰蹻之病 陰急而足直

《鍼灸經緯》<sup>193)</sup>：喉塞小便淋澀 膀胱氣痛腸鳴 食黃酒積腹脹并 嘔瀉胃翻便緊 難產昏迷積塊 腸風下血常頻 膈中積氣氣核侵 照海有功必定

《經絡學圖說》<sup>194)</sup>：氣并相還濡兩目 陽緩陰急 為其病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195)</sup>：外踝以上弛緩하며 內踝以上學急

《鍼灸學》<sup>196)</sup>：多眠，癱閉，陰蹻脈氣失調，出現

187) 李時珍著 朴見譯：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46~147.

188) 李時珍著 朴見譯：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76~177.

189)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84，p.241.

190) 許 浚：東醫寶鑑，서울，대성출판사，1992，p.339.

191) 張景岳：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pp.198~201.

192)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34.

193)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5，pp.291~292.

194) 劉飛白：經絡學圖說，臺北，五洲出版社，1984，p.98.

195) 本間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4，p.292.

196) 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香港，1982，pp.65~66.

肢體的外側肌肉弛緩而內側拘急，這說明與下肢運動功能有關係。咽喉氣塞，小便淋瀝，膀胱氣痛，腸鳴，腸風下血，黃疸，吐瀉，反胃，大便艱難，難產昏迷，腹中積塊，胸膈噎氣，梅核氣等

《鍼灸經穴學》<sup>197)</sup>：陰蹻脈發病時 當從足內踝以上急 外踝以上緩

《最新鍼灸學》<sup>198)</sup>：咽喉氣塞，小便淋瀝，膀胱氣痛，腸鳴，腸風下血，吐瀉，反胃，排便困難，難產，昏迷。腹中積塊，胸膈噎氣，梅核氣，黃疸 等症

《鍼灸學》<sup>199)</sup>：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氣并相還 則為濡目 氣不榮則目不合。衛氣留于陰 不得行于陽 留于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蹻滿 不得入于陽 則陽氣虛 故目閉也。目中赤病 從內眦始 取之陰蹻 陰蹻為病 陽緩而陰急。陰蹻為病 陽緩而陰急。陰蹻脈急 當從內踝以上急 外踝以上緩。寸口脈後部左右彈者 陰蹻也 動苦癩癩寒熱 皮膚淫痺 又為少腹痛 裏急 腰及臍窠下相連 陰中痛 男子陰疝 女子漏下不止。

《鍼灸學》<sup>200)</sup>：陽緩而陰急，陰急而足直。陽氣不足으로 陰氣偏盛하여 出現된 嗜眠症狀，陰氣偏盛과 多眠 嗜 嗜眠症狀에 有效하고 三陰經의 氣를 三陽經에 連絡하며 三陰經이 氣를 調節하는 卽 人身에 陰을 鼓舞시키는 脈이다.

#### 7) 陽維脈

《黃帝內經》：《素門·刺腰痛論》<sup>201)</sup> 陽維之脈令人腰痛 痛上怫然腫

《難經》<sup>202)</sup>：陽維為病 苦寒熱。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自相維則 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197) 32. 楊維傑：鍼灸經穴學，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8，p.54.

198) 金賢濟 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p.90.

199) 楊甲三：鍼灸學。上海，知音出版社，1987，pp.78~79.

200) 崔容泰 外：鍼灸學(上)，서울，集文堂，1988，p.682, 750.

201) 王琦 外：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2，p.197.

202)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1980，pp.23~24.

《脈經》<sup>203)</sup>：陽維爲病 苦寒熱 診得陽維脈浮者 翹起目眩 陽盛實 苦肩息 洒洒如寒。

《黃帝鍼灸甲乙經》<sup>204)</sup>：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相維爲病 腰腹縱容 如囊水之狀

《黃帝內經太素》<sup>205)</sup>：陽維之脈令人腰痛 痛上怫然脈腫

《十四經發揮》<sup>206)</sup>：陽維爲病 苦寒熱 若不能維於陽 則溶溶不能自收持。

《鍼經指南》<sup>207)</sup>：陽蹻陽維并督脈 主肩背腰腿在表之病

《聖濟總錄》<sup>208)</sup>：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鍼灸節要》<sup>209)</sup>：若不能維於陽 則溶溶不能自收持

《鍼灸聚英》<sup>210)</sup>：若不能維於陽 則溶溶不能自收持 陽維爲病 苦寒熱。

《奇經八脈考》<sup>211)</sup>：陽維爲病 苦寒熱 衛爲陽主表 陽維受邪 爲病在表 故苦寒熱 寸口脈從少陽斜至太陽 是陽維脈也 動苦 肌肉痺癢 皮膚痛 下部不仁 汗出而寒 又苦顛仆羊鳴 手足相引 甚者失音不能言 診得陽維脈浮者 翹起目眩 陽盛實者 苦肩息 洒洒如寒 陽維之脈令人腰痛 痛上怫然腫。

《醫學入門》<sup>212)</sup>：陽維之病 苦寒熱

《鍼灸大成》<sup>213)</sup>：肢節腫疼膝冷 四肢不遂頭風

背膀內外骨筋攻 頭項眉稜皆痛 手足熱麻盜汗 破傷眼腫睛紅 傷寒自汗表烘烘 獨會外關爲重 其爲病也 苦寒熱。

《東醫寶鑑》<sup>214)</sup>：陽維爲病 苦寒熱 又曰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相維則 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類經圖翼》<sup>215)</sup>：若不能維於陽 則溶溶不能自收持 陽維爲病 苦寒熱。

《鍼灸集成》<sup>216)</sup>：陽維爲病 苦寒熱 又曰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相維則 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鍼灸經緯》<sup>217)</sup>：肢節腫疼膝冷 四肢不遂頭風 背膀內外骨筋攻 頭項眉稜皆痛 手足熱麻盜汗 破傷眼腫睛紅 傷寒自汗表烘烘 獨會外關爲重

《經絡學圖說》<sup>218)</sup>：陽維爲病苦寒熱 受邪在表 衛不強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219)</sup>：一身身溶溶하여 弛緩하며 힘없고 自身 몸을 維持하기 어렵다。

《鍼灸學》<sup>220)</sup>：傷寒發熱汗出 肢節腫痛 頭項疼痛 眉稜骨痛 手足熱 麻痺 背膀筋骨疼痛 四肢不遂 盜汗 破傷風 膝部冷感 腳跟腫 目赤痛 等症

《鍼灸經穴學》<sup>221)</sup>：陽維脈發病時 多見寒熱

《最新鍼灸學》<sup>222)</sup>：胸腕部滿悶 痞脹 腸鳴泄瀉 脫肛 反胃噎膈 腹中痞塊橫積 脇肋疼痛 女子脇痛 心痛 結胸 傷寒 瘧疾 等症

《鍼灸學》<sup>223)</sup>：陽維之脈令人腰痛 痛上怫然腫。

203) 王叔和：王叔和脈經，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pp.33~34。

204)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臺北，國風出版社，1975，pp.48~51。

205)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p.117。

206) 本間祥白編：圖解十四經發揮，서울，正言出版社，1985，p.156。

207) 竇桂芳：鍼經指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46~147。

208) 趙信編：聖濟總錄(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184。

209) 高武：鍼灸節要，서울，一中社，1989，pp.5~6，10~13。

210) 高武：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134。

211) 李時珍著 朴炅譯：國譯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서울，大星出版社，1992，pp.135~138。

212) 李樞：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2，p.313。

213)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84，p.235。

214) 許浚：東醫寶鑑，서울，대성출판사，1992，p.339。

215) 張景岳：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pp.198~201。

216)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34。

217)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5，pp.291~292。

218) 劉飛白：經絡學圖說，臺北，五洲出版社，1984，pp.93~94。

219) 本間祥白：圖解鍼灸實用經穴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4，p.293。

220) 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香港，1982，p.66。

221) 楊維傑：鍼灸經穴學，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1988，p.55。

222) 金賢濟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p.90。

陽維爲病 苦寒熱. 診得陽維脈浮者 暫起目眩 陽盛實 苦肩息 洒洒如寒.

《鍼灸學》<sup>224)</sup>: 陽維脈, 陽維維於陽 若陽不能維于陽 則溶溶不能自收持, 陽維之病苦寒熱. 惡寒發熱, 精神病에 有效하며 三陽經에 相互間의 氣를 調節시키는 卽 人身에 陽을 守護하는 脈이다.

8) 陰維脈

《黃帝內經》:《素門·刺腰痛論》<sup>225)</sup> 飛陽之脈令人腰痛 痛上拂拂然 甚則悲以恐

《難經》<sup>226)</sup>: 陰維爲病 苦心痛.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自相維則 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脈經》<sup>227)</sup>: 陰維爲病 苦心痛. 診得陰維脈沈大而實者 苦胸中痛 脇下支滿心痛. 診得陰維如貫珠者 男子兩脇實 腰中痛 女子陰中痛如有瘡狀.

《黃帝鍼灸甲乙經》<sup>228)</sup>: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相維爲病 腰腹縱容 如囊水之狀

《黃帝內經太素》<sup>229)</sup>: 陰維維於陰 綱維諸陰之脈也 陰陽不能相維則 悵然失志 不能自持

《十四經發揮》<sup>230)</sup>: 陰維爲病 苦心痛. 陰(陰維脈)若不能維於陰(諸陰脈) 則悵然失志.

《鍼經指南》<sup>231)</sup>: 陰躡陰維任帶衝 去心腹脇肋在裏之凝. 陰躡陰維 而下胎衣.

《聖濟總錄》<sup>232)</sup>: 其病與陽維同

《鍼灸節要》<sup>233)</sup>: 陰維爲病 苦心痛

《鍼灸聚英》<sup>234)</sup>: 若不能維於陰 則悵然失志

《奇經八脈考》<sup>235)</sup>: 陰維維於陰 陰陽不能相維則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陰維爲病 苦心痛. 陰主裏 陰維受邪 爲病在裏 故苦心痛 陰陽相維則營衛和諧矣 營衛不諧 則悵然失志 不能自收持矣. 寸口 脈從少陽斜至厥陰 是陰維脈也 動苦顛癇僵仆羊鳴 又苦僵仆失音 肌肉痺癢 應時自發 汗出惡風 身洗洗然也. 診得陰維脈沈大而實者 苦胸中痛 脇下支滿心痛 其脈如貫珠者 男子兩脅下實腰中痛 女子陰中痛如有瘡狀.

《醫學入門》<sup>236)</sup>: 陰維之病 苦心痛

《鍼灸大成》<sup>237)</sup>: 中滿心胸痞脹 腸鳴泄瀉脫肛 食難下膈酒來傷 積塊堅橫脇搶 婦女脇疼心痛 結胸裏急難當 傷寒不解結胸膈 瘡疾內關獨當. 其爲病也 苦心痛.

《東醫寶鑑》<sup>238)</sup>: 陰維爲病 苦心痛

《類經圖翼》<sup>239)</sup>: 若不能維於陰 則悵然失志. 陰維爲病 苦心痛.

《鍼灸集成》<sup>240)</sup>: 陰維爲病 苦心痛

《鍼灸經緯》<sup>241)</sup>: 中滿心胸痞脹 腸鳴泄瀉脫肛 食難下膈來傷 積塊堅橫脇撐 婦女脇疼心痛 結胸裏急難當 傷寒不解結胸膈 瘡疾內關獨當

《經絡學圖說》<sup>242)</sup>: 其爲病也 苦心痛

《圖解鍼灸實用經穴學》<sup>243)</sup>: 驚恐하여 人事不省

223) 楊甲三 : 鍼灸學. 上海, 知音出版社, 1987, p.82.

224) 崔容泰 外 :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682, 757.

225)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197.

226) 成樂箕 :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80, pp.23~24.

227)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3~34.

228)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229)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117.

230) 本間祥白 編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7.

231) 賈桂芳 : 鍼經指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46~147.

232) 趙信編 : 聖濟總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84.

233) 高 武 : 鍼灸節要, 서울, 一中社, 1989, pp.5~6, 10~13.

234) 高 武 :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35.

235) 李時珍著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33~135.

236) 李挺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13.

237) 楊繼洲 :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28.

238)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대성출판사, 1992, p.339.

239) 張景岳 :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198~201.

240) 李經緯 : 鍼灸集成, 北京, 中國書店, 1986, p.34.

241) 楊維傑 : 鍼灸經緯,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5, p.290.

242) 劉飛白 : 經絡學圖說, 臺北, 五洲出版社, 1984, p.95.

243) 本間祥白 : 圖解鍼灸實用經穴學,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4, p.294.



이 된다

《鍼灸學》<sup>244)</sup>: 心痛, 胃痛, 胸腹痛, 中滿, 痞脹, 腸鳴泄瀉, 食難下膈, 腹中積塊, 脇痛

《鍼灸經穴學》<sup>245)</sup>: 陰維脈發病時 多見心痛

《最新鍼灸學》<sup>246)</sup>: 惡寒發熱, 腰痛, 發冷, 外感熱病, 肢節腫痛, 頭項疼痛, 手足熱, 盜汗, 自汗, 表熱不解等

《鍼灸學》<sup>247)</sup>: 陰維維於陰 陰陽不能相維則 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陰維爲病 苦心痛. 飛陽之脈令人腰痛 痛上拂拂然 甚則悲以恐. 診得陰維脈沈大而實者 苦胸中痛 脇下支滿心痛.

《鍼灸學》<sup>248)</sup>: 陰維脈, 陰維維於陰, 陰若不能維于陰 則悵然失志, 陰維爲病 苦心痛. 苦心痛, 精神病에 有效하며 三陰經에 相互間의 氣를 調節시키는 卽 人身에 陰을 守護하는 脈이다.

### III. 總括 및 考察

十二正經에 대한 奇經의 역할에 대하여 古代醫家들 중<sup>249)</sup> 대부분이 十二正經脈을 江河와 같다고 比喻하고, 奇經八脈은 涵蓄된 湖沼와 같다고 比喻하여 奇經은 循行, 還住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고, 奇經八脈은 단지 十二正經의 經氣作用을 調節하고 넘쳐나는 것을 停蓄하는 作用을 할뿐이라고 하였다.

이는 奇經에 대한 確실한 개념이 부족했던 古代醫家들의 소박한 概念이라고 볼 수 있으니, 經氣가 停滯되어 病狀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 說은 全

面的인 考察이 되지 못한다.<sup>250)</sup>

奇經八脈의 내용도 시대를 거듭할수록 좀더 發展補充되게 되어, 山本<sup>251)</sup> 등은 十二正經과 奇經八脈은 別個의 존재도 아니고 기능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니, 常經은 經絡을 正面에서 把握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奇經은 같은 經絡의 모습을 反面에서 把握한 것이라 하였다. 崔<sup>252)</sup> 등도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을 綜合하고 主導하며 經脈相互間의 連繫를 強하게 할 뿐 아니라 十二正經의 氣血陰陽을 調節하는 機能이 있다고 하였다. 趙<sup>253)</sup> 등은 이러한 機能을 元陰, 元陽에 比喻하였다. 奇經의 病證도 역시 奇經學說의 발전에 따라 《內經<sup>254)</sup>》《難經<sup>255)</sup>》에 記載되어 있는 단순한 病證에서 복잡한 病證으로 變化를 했으니 각 奇經의 病證은 數個經絡의 合併症이라 思料되어졌다.

실제로 金<sup>256)</sup> 등은 奇經의 病候란 일반적 疾病以外的 다른 病證이 아니고 각 奇經의 通轄하는 經脈의 綜合的 症候라 하였다.

督脈의 病證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督脈은 胞

250) 1. 金賢濟外 3人 共譯: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79, p.77, pp.84~91.

2. 山本常夫: 古典研究概論(奇經療法), 醫道の日本誌 第29卷 8號, 1970, p.13.

251) 1. 山本常夫: 古典研究概論(奇經療法), 醫道の日本誌 第29卷 8號, 1970, p.13.

2. 山下詢: 針灸治療學, 東京, 醫齒藥出版 株式會社, 1975, pp.105~106.

252) 1. 金賢濟外 3人 共譯: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79, p.77, pp.84~91.

2. 恙掛君: 針灸의 診斷 理論(下), 東洋醫學誌 第十卷 第3號,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65~68.

3. 黃興理: 試述 奇經八脈及其 辨證施活, 中醫雜誌 1982年 第5期, pp.53~55.

253) 1. 丁光聲: 針灸醫學原論, 서울, 大光文化社, 1981, pp.215~217.

2.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乙酉文化社, 1961, p.266.

254) 1. 楊維傑: 黃帝內經素問 靈樞譯解, 서울, 成輔社 印影, 1980, (素問)p.6, 302, 315, 323, 341, 443, 473. (靈樞) p.145, 191, 215, 233.

255) 成樂箕: 八十一難經 解釋, 서울, 高文社, 1982, pp.23~24, p.44.

256) 1. 金賢濟外 3人 共譯: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79, p.85.

2. 恙掛君: 針灸의 診斷 理論(下), 東洋醫學誌 第十卷 第3號,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65~68.

244) 上海中醫學院 編: 鍼灸學, 香港, 1982, p.66.

245) 楊維傑: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55.

246) 金賢濟 外: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83, p.90.

247) 楊甲三: 鍼灸學. 上海, 知音出版社, 1987, p.82.

248)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682, 755.

249) 1. 成樂箕: 八十一難經 解釋, 서울, 高文社, 1982, pp.23~24, p.44.

2. 李槿: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13.

3. 本間祥白: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p.149~158.

中에서 起하여 下出會陰하여 長強에서 脊正中을 따라 上行하여 風府에서 入絡腦하고 項沿하여 過巔하고 入上脣하여 顛交에서 至한다.<sup>257)</sup> 그 支脈은 “絡腎”, “貫心”, “上系兩目”한다.<sup>258)</sup> 督脈은 諸陽의 海<sup>259)</sup>로 眞元을 統攝하고 全身의 陽氣를 健旺하게 保持하여 督脈이 受損하면 虛脫, 休克, 鬼邪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督脈은 脊을 貫通하여 腎에 屬하고 그 別絡은 臂을 循行하여 腎에 絡하는데 腎은 人身의 先天之本이며, 左는 水에 屬하고 右는 火에 屬<sup>260)</sup>하여 人身의 元氣와 結付되어 盜汗, 破傷風, 眩暈, 手足麻木, 遺精, 背心熱, 遺溺등과 같은 陰虛한 症狀과 虛脫같은 陽虛한 症狀이 나타난다. 內經에 實하면 脊強하고 虛하면 頭重등의 症狀도 督脈 經氣의 經過部에 나타나는 病變으로 脊強은 經氣가 阻塞되었기 때문이고 頭重은 清陽이 不昇하여 나타나는 症狀이며 甚하면 風邪가 督脈 風府穴上에 侵犯하여 腦風을 일으킨다.<sup>261)</sup> 李<sup>262)</sup>등은 督脈의 別絡이 長強에서 走任脈하여 由小腹直上貫臍하고 貫心하여 入喉하고 上顛하고 環脣하기 때문에 小腹衝心而痛, 大小便不利, 衝疝, 不孕, 癰, 瘰, 遺溺, 噎乾등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督脈의 病이 甚하면 陰陽이 混亂을 일으켜 大人은 癲病, 小兒는 風癩등의 症狀을 일으킨다.<sup>263)</sup> 또한 督脈은 太陽經과 表裏를 이루어 起於目內眦하고 上額交巔上하므로 頭風, 目風, 眼寒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257)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58)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94~95.

259) 上海中醫學院 編 : 鍼灸學, 香港, 1982, pp.187~195.

260) 姜揖君 : 鍼灸의 診斷理論(下), 서울, 東洋醫學第十卷 第3號, 1984, pp.65~68.

261) 1. 姜揖君 : 鍼灸의 診斷理論(下), 서울, 東洋醫學第十卷 第3號, 1984, pp.65~68.

2.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62) 李時珍著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76~177.

263) 1.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3~34.

督脈의 身柱穴은 腎上連肺를 意味하는 肝腎이 相交하는 穴로 一身元氣의 主宰機能<sup>264)</sup>을 가지고 있어 鼻淵, 二便不利등이 나타날 수 있고 百會穴은 發散機能을 主宰하고 肝脈이 여기서 交會<sup>265)</sup>하므로 風으로 인한 中風, 項強, 破傷風, 口喎, 口噤, 腦風등의 症狀이 발생될 수 있고, 顛會穴에서는 陽中の 陰陽인 神과 髓가 서로 交會하는 곳<sup>266)</sup>으로 心神이 위로 發揮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癲, 癩, 狂, 鬼邪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또한 督脈의 經氣 流注上 腦, 脊髓, 腎, 胞, 鼻, 眼, 口脣과 聯系되므로<sup>267)</sup> 이와 關聯있는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督脈의 病證은 女子不孕, 遺溺, 頭重, 厥證, 眼寒, 腰背膝寒, 盜汗, 破傷風, 眩暈, 手足麻木, 遺精, 背心熱, 虛脫, 鼻淵, 鬼邪, 精神失常, 驚厥, 遺淚, 鼻衄, 脫肛, 子宮下遂, 休克, 昏厥, 振顛, 聾啞, 喘咳, 泄瀉, 月經不調, 帶下등의 虛證과 小腹上衝心而痛, 脊強反折, 衝疝, 癰, 痔, 噎乾, 二便不利, 腦風, 狂癡, 腰背強痛, 不得俛仰, 大人癲病, 小兒風癩, 腫熱, 目風, 中風不語, 手足拘攣, 頭疼, 眼腫淚漣漣, 項強, 傷寒, 牙齒顛腫, 口喎, 口噤, 大椎骨痠痛, 角弓反張, 筋痺, 瘡疾, 咽喉腫痛, 發熱, 抽搐, 頭痛, 落枕등 實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精神病, 泌尿生殖系疾病, 肝, 膽, 脾, 胃, 心, 肺등의 內臟疾患과 督脈 流注上의 疾患으로 構成되어 있다.

任脈의 病證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任脈은 陰經脈氣의 總匯로 陰經의 病證이 主가 되며 특히 肝腎 二經의 症候로 나타난다.<sup>268)</sup> 그 循行이 胞中에서 起하여 循小腹하고 關元穴 部位에서 三陰經

264)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서울, 第一文化社, 1989, 一卷 pp.419~420.

265)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서울, 第一文化社, 1989, 一卷 pp.419~420.

266)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서울, 第一文化社, 1989, 一卷 pp.419~420.

267) 1.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1),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1號, 1985, pp.64~74.

2.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268)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94~96, 104~106, 127~129.

脈과 交會<sup>269</sup>)하므로 그 病證이 主로 小腹에서 多發하여 內經<sup>270</sup>)의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 癢聚”와 脈經<sup>271</sup>)의 “動苦少腹繞臍下 引橫骨陰中切痛”, “苦腹中有氣 如指上搶心 不得俛仰拘急”등의 腹部와 陰中 및 肝腎과 有關한 任脈의 病이 나타난다. 또한 任脈은 起于胞中하여 生殖系統과 密接한데, 滑<sup>272</sup>)등이 “婦人生養之本”, 王<sup>273</sup>)등이 “任主胞胎”등은 內經의 “任脈通 …… 月事以時下”의 內容이 發展된 것으로 이 理論을 根據로 任脈은 婦女의 胎, 產, 經, 帶의 諸症候가 나타난다.<sup>274</sup>)

李<sup>275</sup>)등은 任脈은 腹에 있어서 胃에 속하므로 先天之後天에 該當한다고 하여 先天은 氣를 主하여 火交於水의 意味로 上昇하였다가 任脈과 交한 후 다시 아래로 胞中에 交하고 後天은 血을 主하므로 金水下降의 結果로 血이 아래로 胞中에 入한 것이니 任脈은 火土의 心脾를 의미하여 氣旺生血의 二陰의 血에 該當되고 任脈은 또한 心에 屬하여 體陽而用陰의 火性에 의하여 下로 入하여 心腎이 相交하여 任脈은 陰血의 機能을 代表的으로 한다고 하여 心腎不交로 인한 陽痿, 遺精, 失眠, 休克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嘔吐, 噎膈, 胃痛, 腹痛, 吃逆, 腹脹, 泄瀉등과 같은 消化器 系統의 症狀이 發生된다.

任脈은 性徵과도 有關<sup>276</sup>)하여 任衝脈이 不盛하면 宗筋不成, 脣口不榮등이 發生되고 毛髮은 血之餘로 任衝이 不盛하면 鬚不生이 나타난다. 任脈의 經氣流注上 胞, 口脣, 眼등과 聯系<sup>277</sup>)되므로 이와

關聯있는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任脈의 病證은 無子, 赤白帶下, 宗筋不成, 脣口不榮, 鬚不生, 泄痢, 噎膈, 陽痿, 遺精, 失眠, 休克, 吃逆, 產後不語, 臍寒, 死胎不下, 膈中寒, 月經不調, 流產, 經閉, 遺尿, 吐血, 崩漏下血, 氣喘, 暴暗, 淋證등의 虛證과 男子七疝, 女子癢聚, 腰痛, 腹中有氣, 不得俛仰, 陰中切痛, 痔, 瘡, 牙疼, 喉腫, 小便難, 血尿, 心胸腹疼, 嘔吐, 喉痺, 胃痛, 腹痛, 腹脹, 乳癰, 口舌生瘡, 頭項強痛, 乳房痛, 水腫등의 實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泌尿生殖系統疾患, 婦女의 經, 帶, 胎, 產의 病證, 胃腸疾患, 心肺疾患과 虛脫症狀으로 構成되어 있다.

衝脈의 病證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衝脈은 任督脈과 同出異流<sup>278</sup>)하며 經脈의 氣血作用을 總領하므로 血海<sup>279</sup>)라 稱하여 靈樞 海論에 血海가 有餘하면 “身大”하고 不足하면 “身少”한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280</sup>) 衝脈은 起于胞中하므로 婦女의 月經, 生育 및 胞宮과 密接한 關係가 있어 太衝脈이 盛하면 月事が 있어 有子하고 太衝脈이 衰하면 無子, 絶育하게 된다.<sup>281</sup>) 衝任脈의 氣가 虛해서 不能攝하게 되면 婦女의 經, 帶, 胎, 產에 關聯된 症狀이 나타나고, 衝脈이 上行하여 “滲諸陽”하고 下行하여 “灌諸精”하므로 男子의 生殖機能에도 影響을 미치어 이와 關聯된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sup>282</sup>)

또한 衝脈은 “合於宗筋 會於氣街”하고 “注足少陰腎經之大絡”하여 足少陰腎經과 足陽明胃經과 密

269) 正玄山人 : 玄眞陰陽五行築基參證, 臺北, 玄眞道學出版社, 1984, pp.329~336.

270) 王琦 外 : 素問今釋, 貴洲, 貴洲人民出版社, 1982, p.264.

271)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3~34.

272) 本間祥白 編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1.

273)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2~35.

274)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75)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서울, 第一文化社, 1989, 一卷 pp.423~424.

276)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29.

277) 1.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2),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2號, 1985, pp.44~53.

2.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278) 1.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96.

2.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79) 莊育民 : 中國鍼灸學, 香港, 香港上海印書館, 1976, p.271.

280)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28.

281)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29.

282) 林鍾國 : 鍼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6, p.130.

接한 關係가 있다.<sup>283)</sup> 足少陰腎經은 人身 先天의 根本으로 五臟六腑의 元氣와 關係가 있고, 足陽明胃經은 人身 後天의 根本으로 “胃爲中土萬物所歸之處”이므로 衝脈은 先天과 後天의 五臟六腑의 眞氣를 涵蓄하여 十二正經의 海가 되므로 病證도 人體 全般에 걸쳐 나타난다.<sup>284)</sup> 衝脈은 足陽明胃經과 宗筋에서 合하고 少陰의 大絡으로 注하므로 全身의 筋脈, 骨格을 約束하고 調節하는 機能이 있고, 氣街에서 腎經을 狹하고 上行하므로 經氣가 逆順하면 “逆氣裏急”의 症狀이 나타나고 “奔豚”, “厥則寒”, “喘動應手”, “體重身痛”도 衝脈의 經氣가 失調되어 나타나는 症狀이다.<sup>285)</sup>

衝脈도 任脈과 같이 性徵에 關聯이 있어 “宗筋不成”, “口脣不榮”, “鬚不生”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衝脈은 經氣流注上 胞, 腎, 口脣, 眼과 聯系<sup>286)</sup> 되므로 이와 關聯된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衝脈의 病證은 脣口不榮, 鬚不生, 厥則寒, 身少, 絕孕, 遺溺, 喘息, 不得臥, 腸鳴, 胎衣不下, 泄瀉, 經閉, 崩漏, 乳少, 吐血, 流產, 月經不調, 血崩昏迷, 大便溏泄, 噎膈, 產後暈厥 등의 虛證과 逆氣裏急, 喘動應手, 體重身痛, 狂癡, 寒疝, 少腹痛, 上搶心, 脇支滿煩, 躁熱, 九種心疼延悶, 結胸, 飜胃, 酒食積聚, 臍痛, 腹疼, 脇脹, 腸風, 瘡疾, 反胃, 水氣, 大便紅, 胸腹內絞痛, 痛經 등의 實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婦女의 經, 帶, 胎, 産의 病과 泌尿生殖系疾患, 胃腸疾患으로 構成되어 있다.

帶脈의 病證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帶脈은 그 循行이 腰腹을 橫行하므로 諸經脈을 約束하여 經氣를 暢通시키고 調節하는 機能<sup>287)</sup>이 있어 그 病

候도 腰腹部 症狀이 多見된다. 內經<sup>288)</sup>의 “衝絡之脈 令人腰痛”, 難經<sup>289)</sup>의 “帶爲病 腹滿 腰溶溶若水中”, 脈經<sup>290)</sup>의 “左右繞臍 腰脊痛衝陰股”등 이 모두 帶脈의 機能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症狀이다.

帶脈은 또한 腰部以下の 病候와도 密接한 關係가 있어 婦女의 月經不調 및 赤白帶下를 發生시킨다. 李<sup>291)</sup>는 “婦人惡露 隨帶而下 故謂之帶下”, “諸經上下往來 遺熱於帶脈之間 寒熱鬱抑 白物益滿 隨搜而下 綿綿不絕”이라 하여 帶下諸病이 帶脈과 重要한 關係가 있음을 說明하였다. 內經<sup>292)</sup>에 陽明經과 衝脈이 모두 帶脈에 屬하여 “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의 痿症이 帶脈失調로 發生됨을 說明하였다. 帶脈은 經氣流注上 腎, 生殖器官과 聯系<sup>293)</sup>되므로 이와 關聯된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帶脈의 病證은 宗筋縱, 足痿不用, 腹滿, 月經不調, 赤白帶下, 手足中風不舉, 頭旋, 耳聾, 腰腹縱容如囊水之狀, 子宮下遂, 腰軟無力, 痿症, 癱瘓, 畏寒, 胎動不安, 崩漏, 經閉, 遺精, 陽痿, 泄瀉, 食慾不振 등의 虛證과 腰痛, 不可俯仰, 臍腹腰脊痛, 裏急後重, 瘕瘕, 少腹痛, 發熱, 拘攣, 頭風痛腫項顛連, 眼腫赤疼, 齒痛, 咽腫, 癢痒, 筋牽, 腿腫, 脇脹, 水腫, 痛經, 陰股痛 등의 實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婦女의 經, 帶疾患과 泌尿生殖

7~195.

2. 孫學全 : 鍼灸臨床問答, 濟南, 山東科學出版社, 1987, pp.38~39.

3. 楊甲三 : 鍼灸學. 上海, 知音出版社, 1987, pp.67~83.

288)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197.

289) 葉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54.

290)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2~35.

291) · 朴昞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76~177.

292)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212

293) 1.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1),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1號, 1985, pp.64~74.

2.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283) 1. 姜掛君 : 鍼灸의 診斷理論(下), 서울, 東洋醫學 第十卷 第3號, 1984, pp.65~68.

2.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284)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85)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29.

286) 1.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2),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2號, 1985, pp.44~53.

2.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287) 1. 上海中醫學院編 : 鍼灸學, 香港, 1982, pp.18

系疾患, 胃腸疾患 및 痿症으로 構成되어 있다.

陰蹻脈과 陽蹻脈의 病證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蹻脈은 陰陽의 相互交合의 作用이 있다.<sup>294)</sup> 陽蹻脈은 足外踝에서 上行하여 脊을 따라 風池로 上行하고, 陰蹻脈은 足內踝에서 上行하여 咽喉에 達하여 兩蹻脈은 目에서 會하여 兩目을 濡養하고 開合을 司한다.<sup>295)</sup> 그러므로 “氣竝相還則爲濡目 氣不營則目不合”<sup>296)</sup>의 症狀이 나타나고, 兩蹻脈의 出入이 不相交하면 陰陽의 氣가 偏盛偏亢하여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sup>297)</sup>, “邪客于足陽蹻之脈 令人目痛從內眦始”<sup>298)</sup>, “目中赤病 從內眦始 取之陰蹻”<sup>299)</sup> 등의 目疾, 失眠, 多寐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難經<sup>300)</sup>의 “陽蹻爲病 陰緩而陽急, 陰蹻爲病 陽緩而陰急”은 病者는 急하고 不病者는 緩하므로 陰蹻脈이 急하면 內踝以上이 急하고 外踝以上은 緩하게 되며, 陽蹻脈이 急하면 外踝以上이 急하고 內踝以上이 緩하게 된다.<sup>301)</sup>

癩癧, 瘰癧 및 癱瘓 등과 같은 筋脈이 牽引하여 抽搖하고 左右緩急이 失衡하여 나타나는 症狀도 蹻脈과 관련이 있어 李<sup>302)</sup>는 “所以使機關之蹻捷也”라 하여 兩蹻失調가 運動失調의 病態를 惹起한다고 說明하였다. 王<sup>303)</sup>의 “癩癧病症 不知所苦 兩

蹻之下 男陽女陰”과 張結古의 “癩癧晝發灸陽蹻 夜發灸陰蹻” 등은 癩癧이 蹻脈의 病症임을 說明하였다.

陽蹻脈이 足太陽經의 支別이고 足太陽膀胱經이 腰背部로 循行하므로 動苦腰背疼痛, 身體強直 등의 陽蹻脈의 病證이 나타나고, 陰蹻脈이 足少陰經의 支別이고 足少陰腎經이 腹部로 循行하므로 小腹痛, 腰體連陰中痛, 男子陰疝, 女子漏下 등의 陰蹻脈의 病證이 나타난다.<sup>304)</sup> 陽蹻脈의 經氣流注上 腦, 眼, 口와 聯系<sup>305)</sup>되고 陰蹻脈의 經氣流注上 腦, 眼, 生殖器와 聯系<sup>306)</sup>되므로 이와 關聯있는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蹻脈의 病證은 目不合, 下胎衣, 女子漏下不止, 腸鳴, 泄瀉, 難產, 昏迷, 下血, 嗜睡, 精神困頓, 內外則肌肉弛緩不遂, 痿症, 自汗, 耳聾, 鼻衄, 臂冷, 汗頭淋, 手足麻痺, 厥逆 등의 虛證과 瞑目, 瞑目, 目閉, 目中赤痛, 癩癧, 皮膚淫痺, 寒熱, 少腹痛, 裏急, 陰中痛, 男子陰疝, 瘰癧, 足直, 喉塞, 小便淋瀝, 膀胱氣痛, 食黃酒積, 嘔吐, 反胃, 梅核氣, 腸風, 抽搖, 腹中積塊, 黃疸, 腿腫, 內外則肌肉拘急痙攣, 惡風, 頭痛, 眉稜骨痛, 癩癧, 骨節疼痛, 腰背屈強, 腦頭風, 遍身腫, 不眠, 狂症 등의 實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眼開合失司와 睡眠障礙, 肢體抽搖 및 失衡症狀, 足少陰腎經과 足太陽膀胱經과 關聯된 病證으로 構成되어 있다.

陰維脈과 陽維脈의 病證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維脈은 維繫와 維絡하는 作用이 있어 “諸脈之綱維”라 하여 諸經의 經氣를 維系하고 調節하는 作用이 있다.<sup>307)</sup> 陽維脈은 諸陽과 維系하여 諸陽의 會(金門穴)에서 起하고 특히 足太陽經과 足少陰經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 經氣는 太陽이 一身의 表를 主하고 少陽이 半表半裏를 主하니 六淫의 外邪

294) 1. 林鍾國 : 鍼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6, p.130, 470, 503, pp.145~147, 485~487.

2. 崔容泰 外 :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45~47, 111~117, 682~688, 714~718.

295) 楊甲三 : 鍼灸學. 上海, 知音出版社, 1987, pp.67~83.

296)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348.

297)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389.

298)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283.

299)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428.

300)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86.

301) 1.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2. 本間祥白 編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152.

302) 李時珍著 朴奩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76~177.

303) 王叔和 :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2~35.

304)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30.

305)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1),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1號, 1985, pp.64~74.

306)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2),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2號, 1985, pp.44~53.

307)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가 侵犯하면 太陽, 少陽의 二經이 제일 먼저 衝突하니 太陽經의 惡寒發熱과 少陽經의 寒熱往來가 發生하고, 二經의 經氣가 不和하면 寒熱을 發生하여 難經의 “陽維爲病 苦寒熱”이 發生하는 原理가 된다.<sup>308)</sup>

陰維脈은 諸陰과 維系하여 諸陰의 交(築賓穴)에서 起하고 특히 足太陰經과 足少陰經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 太陰과 少陰의 二經에 寒凝하여 氣의 循行이 阻礙되거나, 厥氣가 橫逆하거나, 任脈의 氣가 上衝하거나 하면 胸部나 上腹部의 疼痛이 發生하므로 難經에 “陰維爲病 苦心痛”이라 하였다.<sup>309)</sup>

陽維脈은 陽에 屬하고 主表하므로<sup>310)</sup> 頭目眩暈, 氣喘拾肩, 肌膚痺痛 및 腰部痛 등의 症狀이 나타나 內經<sup>311)</sup>에 “陽維之脈 令人腰痛 痛上怫然腫”이라 하였다. 陰維脈은 陰에 屬하고 主裏하므로<sup>312)</sup> 胸中痛, 脇下支滿, 腰痛 및 陰中痛 등이 發生한다. 陰陽維脈이 相互 協調機能이 失調되면 精神失常, 跌仆癱瘓, 全身乏力 및 言語障礙가 發生되어 難經<sup>313)</sup>에 “陰陽不能自相維 則悵然失志 浴浴不能自收持”라 하였다. 陽維脈의 經氣流注上 耳에 聯系<sup>314)</sup>하고, 陰維脈의 經氣流注上 舌根과 胸腹腔內의 臟腑와 聯系<sup>315)</sup>하므로 이와 關聯된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維脈의 病證은 悵然失志,

不能收自持, 下胎衣, 僵仆, 羊鳴, 失音, 腹臍縱容如囊水之狀, 汗出惡風, 腸鳴, 泄瀉, 脫肛, 傷寒不解, 憂鬱, 手足熱, 盜汗, 發冷, 自汗, 目眩, 膝冷, 手足麻痺, 破傷風, 四肢不遂 등의 虛證과 腰痛, 心痛, 胸中痛, 脇下支滿, 陰中痛, 癱瘓, 肌肉痺癢, 心胸痞脹, 食黃下膈, 積塊堅橫脇脹, 結胸, 裏急, 瘡疾, 中滿, 胃痛, 頭項疼痛, 外感熱病, 惡寒發熱, 肢節腫痛, 氣喘拾肩, 頭風, 眉稜骨痛, 脚跟腫 등의 實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足太陰, 足少陰, 足太陽, 足少陽과 關聯된 病證과 精神失調로 構成되어 있다.

#### IV. 結論

1. 奇經八脈은 十二正經을 組合하고 主導하며 經脈相互間의 關係를 強하게 할 뿐아니라 十二正經의 氣血陰陽을 調節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2. 任督二脈은 獨自의 腧穴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六經(衝脈, 帶脈, 陽蹻脈, 陰蹻脈, 陽維脈, 陰維脈)의 腧穴은 正經과 共有하고 있으며 奇經八脈이 十二正經의 사이를 錯綜하여 流注하면서 正經의 脈氣를 調節한다.

3. 奇經은 單純한 傍側循環系나 縫合系統의 存在만이 아니라 高次元의 整理機構로서의 機能을 갖고 있다.

4. 奇經은 正經의 病邪가 移動하여 病理的 狀態에 이르게 되며, 奇經自病은 自生하지 않는다.

5. 奇經의 病證은 各 奇經이 統轄하는 各 經脈의 綜合的 症候群이다.

6. 督脈의 病證은 肝, 膽, 心, 肺, 脾, 胃 등의 內臟疾患, 精神疾患, 泌尿生殖系疾患 등 주로 督脈流注上의 病證으로 되어 있다.

7. 任脈의 病證은 泌尿生殖系疾患, 婦女的 經, 帶, 胎, 産의 病證, 胃腸疾患, 心肺疾患, 虛脫로 인한 病證으로 되어 있다.

8. 衝脈의 病證은 婦女的 經, 帶, 胎, 産의 病證, 泌尿生殖系疾患, 胃腸疾患으로 되어 있다.

9. 帶脈의 病證은 婦女的 經, 帶의 病證, 泌尿生殖系疾患, 胃腸疾患, 痿症으로 되어 있다.

10. 陰蹻脈과 陽蹻脈의 病證은 眼의 開合失司와

308) 1. 姜埈君 : 鍼灸의 診斷理論(下), 서울, 東洋醫學第十卷 第3號, 1984, pp.65~68.

2.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309) 1. 姜埈君 : 鍼灸의 診斷理論(下), 서울, 東洋醫學第十卷 第3號, 1984, pp.65~68.

2.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310)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30.

311)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2, p.197.

312)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30.

313) 葉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54.

314) 高敏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1),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1號, 1985, pp.64~74.

315) 高敏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2),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2號, 1985, pp.44~53.

睡眠障碍, 肢體抽搐 및 失衡症狀과 足少陰經과 足太陽經에 關聯된 病證으로 되어 있다.

11. 陰維脈과 陽維脈의 病證은 精神失調와 足太陰經, 足少陰經, 足太陽經, 足少陽經과 關聯된 病證으로 되어 있다.

以上에서와 같이 奇經八脈의 病證은 奇經의 獨特的 生理作用과 循環에 有關하며, 奇經의 病症은 奇經이 統轄하는 經脈과 臟腑의 綜合的 症候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奇經의 病證과 各 奇經을 代表하는 奇經八穴의 主治病證과의 比較研究가 追加的으로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崔容泰 外 : 針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45~47, 111~117, 682~688, 71 743~756.
2. 楊維傑 :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47~62.
3. 劉飛白 : 經穴學圖說, 臺北, 五洲出版社, 1984, p.84~98, 160~161.
4. 成樂箕 : 實用針灸學, 대전,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經穴學教室, 1990, p.60
5. 王琦 外 : 素問今釋, 貴洲, 貴洲人民出版社, 1982, pp.1~2, 188~189, 264~265, p.197, 202, 212, 283.
6. 河北醫學院 校釋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 p.58, 277, 278, 285, 342, 348, 514, pp.388~389, 428~429, 514~515, (下冊) pp.186~187, 26 442~443, p.230, 238.
7.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94~96, 104~106, 127~129.
8. 成樂箕 :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80, pp.23~24. p.44.
9. 葉 霖 :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54.
10.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p.175~211.
11. 經絡十講編寫組 : 經絡十講,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40~55.
12. 皇甫謐 : 黃帝鍼灸甲乙經, 臺北, 國風出版社, 1975, pp.48~51.
13.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109~117.
14. 寶桂芳 : 鍼經指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46~147.
15. 姜揖君 : 奇經八脈交會穴의 臨床應用, 1983, 中醫雜誌 第24卷 第6期, pp.42~44.
16. 李時珍著 朴炅譯 : 國譯 瀕湖脈學·四言要訣·奇經八脈考, 서울, 大星出版社, 1992, pp.133~138, 146~147, 150~153, 161~166, 176~179, 180~181, 189~191.
17.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1),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1號, 1985, pp.64~74.
18. 高敬錫 : 奇經八脈의 流注 및 關聯臟器에 대한 考察(2), 서울, 東洋醫學 第10卷 第2號, 1985, pp.44~53.
19. 楊繼洲 :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225~241, 365~367.
20. 盧宗植 : 奇經八脈의 病症에 대한 文獻의 考察, 서울, 慶熙大 鍼灸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85.
21. 李炳幸 : 奇經八法의 新研究, 서울, 醫文社, 1968, p.58.
22. 秦越人 :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0~51, 54.
23. 張景岳 :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202~205.
24. 本間祥白 編 : 圖解十四經發揮, 서울, 正言出版社, 1985, pp.148~158.
25. 馬元臺 張隱庵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國民七十年, 靈樞 p.287, 381, 394, 395, 422.
26.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7. 趙信編 : 聖濟總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3175~3185.
28. 李梴 :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p.76~79.
29. 上海市 中醫學會 編著 : 經絡學說의 理論及

- 其運用, 香港, 醫藥衛生出版社, 1976, pp.39~45.
30. 山下詢: 針灸治療學, 東京, 醫齒藥出版 株式會社, 1975, pp.105~106.
31.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乙酉文化社, 1961, p.266.
32. 管正文: 經絡辨證 針灸法 述要, 雲南中醫雜誌 1981年 第二期, pp.10~14.
33. 間中喜雄著, 柳泰佑譯: 鍼術入門講座,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84, p.232.
34. 黃興理: 試述 奇經八脈及其 辨證施活, 中醫雜誌 1982年 第5期, pp.53~55.
35. 恙揖君: 針灸의 診斷 理論(下), 東洋醫學誌 第十卷 第3號,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65~68.
36. 金賢濟 外: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83, p.90.
37. 金完熙 外: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P.220.
38. 王叔和: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p.32~35.
39. 高 武: 鍼灸節要, 서울, 一中社, 1989, pp.5~6, 10~13.
40. 高 武: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43~149.
41.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777.
42. 楊維傑: 鍼灸經緯,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5, pp.290~292.
43. 劉飛白: 經絡學圖說, 臺北, 五洲出版社, 1984, pp.84~98, 160~161.
44. 本間祥白: 圖解鍼灸實用經穴學,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4, pp.291~294.
45. 上海中醫學院 編: 鍼灸學, 香港, 1982, pp.187~195.
46. 楊維傑: 鍼灸經穴學, 臺北, 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 1988, pp.47~62.
47. 金賢濟 外: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1983, p.1, pp.77~91.
48. 楊甲三: 鍼灸學. 上海, 知音出版社, 1987, pp.67~83.
49.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198~201.
50. 李經緯: 鍼灸集成, 北京, 中國書店, 1986, pp.34~36.
51. 山本常夫: 古典研究概論(奇經療法), 醫道の日本誌 第29卷 8號, 1970, p.13.
52. 山下詢: 針灸治療學, 東京, 醫齒藥出版 株式會社, 1975, pp.105~106.
53. 丁光聲: 針灸醫學原論, 서울, 大光文化社, 1981, pp.215~217.
54. 李正來: 太韓醫學全集, 서울, 第一文化社, 1989, 一卷 pp.415~462.
55. 正玄山人: 玄真陰陽五行築基參證, 臺北, 玄真道學出版社, 1984, pp.329~336.
56. 莊育民: 中國鍼灸學, 香港, 香港上海印書館, 1976, pp.271~274.
57. 林鍾國: 鍼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6, p.130, 470, 503, pp.145~147, 485~487
58. 孫學全: 鍼灸臨床問答, 濟南, 山東科學出版社, 1987, pp.38~39.